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우자조금

2023년 2월호 Vol.208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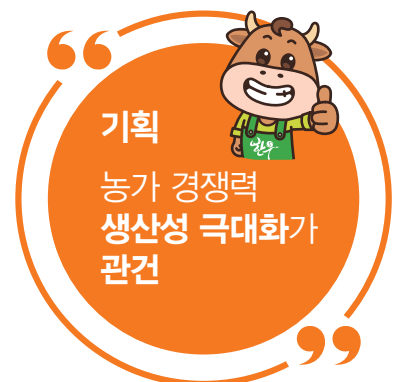
- ① 1년 1산 실현위한 핵심포인트
- ② 송아지 폐사율 최소화위한 핵심포인트

선도농가 탐방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로 체계적인 사양관리 확립”

농장관리 체크포인트

효율적인 퇴비 부숙 위한 우분관리 요령





표지이야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우사육을 시작한 김병대 대표는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로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확립해 지난해 25두의 거세우를 출하, 평균 출하월령 25.8개월, 1⁺등급 출현율 50% 내외, 1⁺ 이상 90%를 기록했다.

2023년 2월호 통권 제208호

발행일 2023년 2월 17일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3층 유통부

전화 02-522-3606 팩스 02-522-4314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04 기획

농가 경쟁력 생산성 극대화가 관건

- 1년 1산 실현위한 핵심포인트
- 송아지 폐사율 최소화위한 핵심포인트

08 선도농가 탐방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로 체계적인 사양관리 확립”
경북 상주 ‘대농농장’

12 한우자조금이 만난 사람

“명품 한우 노하우…
후배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
이병환 전국한우육종농가협의회장

14 농장관리 체크포인트

효율적인 퇴비 부숙 위한 우분관리 요령

16 포커스

- 2023년 온라인 한우장터 & 전국 한우 할인판매행사 성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3’ 발표

22 방송에서 만난 한우

‘한우가 최고’ 명절 선물 선호도 ‘1위’

23 이달의 소식

- 제5기 후반기 한우자조금 임원선거
- ‘한우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 결과 발표
- 설날에도 한우와 설래빗 ‘나만의 소망카드’를 꾸며보소 이벤트

26 한우시황

2023년 1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27 독자마당



농가 경쟁력, 생산성 극대화가 관건



현재 한우농가는 가격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배합사료와 조사료 등 생산비는 크게 올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가 차원에서 생산비 절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 기고를 통해 1년 1산 실현과 송아지 폐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양관리 요령에 대해 살펴봤다.



조 상 래 농업연구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1년 1산 실현위한 핵심포인트



암소에 있어 정상적인 번식활동을 위한 사양관리 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육성기 때 급여하는 사료의 영양수준에 따라 암소의 성성숙 시기가 결정돼 번식주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소의 번식목표인 1년 1산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사양관리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유시기 늦어지면 안돼

암소가 분만한 후 50~60일이 지나면 다시 새끼를 갖기 위한 발정징후를 보이는데, 발정이 와서 수정시켜 수태(임신)하기까지의 기간을 공태기간이라고 한다.

이 공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분만 후 발정재

귀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하지만 어미 소의 영양수준이 적합하지 못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분만 후 자궁회복이 늦어지면 발정재귀가 지연될 수 있다. 또 송아지의 이유시기가 늦어져 어미 소를 오랫동안 포유시키면 체내 호르몬 변화(옥시토신, 프로락틴의 분비)로 발정재귀가 늦어지거나 미약발정으로 발정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분만 후 너무 일찍(약 15~35일) 종부시킬 경우에도 자궁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임신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13~14개월령(체중 270kg 이상)이 번식적령기

암송아지는 성장·발육함에 따라 암소의 징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7~11개월령(약 182kg 내외)이 되면, 첫 발정이 나타나고 배란이 시작된다. 이 시기를 춘기발동기라 하며 성성숙은 생후 12개월령 전후(200~250kg)에 이뤄져 암소로서의 번식능력을 모두 갖추게 된다. 그러나 번식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기초골격이나 근육 등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암소의 번식적령기는 성성숙이 완료된 13~14개월령(체중 270kg 이상)이다.

사료 급여, 체중의 1.5~1.8%

가축에 있어 영양소는 일반적으로 ①기초대사 ②운동 ③성장 ④기본에너지 ⑤임신 ⑥비유 ⑦추가 에너지 축적(비육) ⑧발정주기의 반복과 임신의 개시 ⑨과잉에너지의 축적 등으로 이용되며, 남은 에너지는 분(糞)과 요(尿)로 배설된다.

이와 같이 번식우가 섭취한 영양소는 우선 자기 자신의 생명유지를 위해 사용된 후 생리적 상태에 따라 성장발육, 태아발육 및 송아지 포유를 위한 젖 생산에 이용된다. 이때 영양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발정재귀가 늦어지고 수정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번식우의 과비는 미약발



정, 배(胚)사멸의 증가, 난산과 같은 번식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료(번식우 전용사료) 급여는 체중의 1.5~1.8%정도(CP 13%, TDN 68~70%)로 급여해야 한다. 특히 성장단계별 사료 종류와 급여량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정도의 적응기간을 두고 사양프로그램에 맞게 점진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분만 후 1주일경부터 운동시켜야

어미 소는 대체적으로 분만 후 30일에서 90일경이면 발정이 오는데, 발정재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번식우의 운동은 정상적인 번식능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식욕 증진과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있다. 특히 일광욕과 병행할 때에는 비타민 D 형성과 혈액순환으로 번식우의 건강유지와 함께 산후 자궁회복 및 발정재귀일수 단축효과가 있다. 이에 분만 후 1주일경부터 충분한 운동과 일광욕을 시키면서 개체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포유 중인 어미 소 이유 시까지 사료 20% 증량

포유 중인 어미 소의 자궁회복을 빠르게 하고 송아지에게 먹일 우유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영양소를 충족시키려면 이유 시까지 약 3개월 동안 사료

를 20% 증량해 급여해야 한다. 그러나 송아지가 너무 오랫동안 젖을 빨면 어미 소가 다음 새끼를 갖기 위한 발정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송아지가 1일 약 500g 이상의 인공유를 섭취하면 가급적 조기에 이유하는 것이 좋다.

일괄수태법·백신 접종 통해 송아지 생산·육성율 증대

번식우를 다두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효율적인 번식우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발정동기화를 시켜 원하는 월에 분만할 수 있도록 발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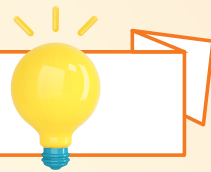
유도해 수정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방식보다 발정동기화 비율 및 수태율이 높은 일괄수태법(발정·배란 동기화)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송아지 육성율 관리를 위해서는 질병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산우의 경우에는 분만 4~2주 전에 백신(로타 및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경산우는 분만 2주 전에 동일한 백신(로타 및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어미 소의 면역물질이 초유를 통해 송아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의 형 수의연구사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송아지 폐사율 최소화위한 핵심포인트



한우산업에서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송아지 시기에 나타난다. 특히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 발생이 송아지의 주된 폐사 원인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송아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교육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우농가에서는 송아지 질병 발생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따라서 송아지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분만실·송아지 우방 정기적인 소독·환기 실시
송아지 폐사율 최소화를 위해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사양관리는 **어미 소와 송아지가 있는 우방의 환경관리**다. 송아지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은 주로 입이나 코를 통해

송아지 체내로 들어가 질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분만실과 송아지 우방의 정기적인 소독과 환기가 중요하다**.

특히 분만실의 경우 송아지가 처음 세상에 나와 병원성 미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만 예정우가 들어가기 전 꼭 소독을 해야 한다. 또 분변 등 오염물이 많고, 습하고 더운 여름철 송아지 우방의 바닥은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깔짚을 자주 교체**해 줘야 한다.

아울러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나 축사 내 환기불량, 밀집 사육, 영양상태 불량 등의 환경적 요인은 스트레스로 작용해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아지 우방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만 후 빠른 시간 내 가능한 많은 양의 초유 섭취

어미 소가 송아지를 분만한 직후부터 2일 이내에 나오는 젖을 말하는 초유에는 어미 소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갓 태어난 송아지는 이와 같은 어미 소의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물질을 갖추게 된다.

초유섭취량은 송아지 분만 후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양을 먹이는 것을 추천한다. 초유 속의 항체도 일종의 단백질로 볼 수 있다. 처음 태어난 송아지의 장에는 이러한 항체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다. 하지만 항체이동 통로는 출생 직후부터 빠른 속도로 닫히기 시작한다. **특히 송아지가 태어난지 약 12시간 후에는 통로가 거의 닫혀** 초유를 섭취해도 항체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으며, **이 항체들은 일반 단백질과 같이 소화돼 항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송아지에 초유를 먹이기 전에는 어미 소의 젖꼭지에 묻어있을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해줘야 한다. 이에 소독약으로 어미 소의 젖꼭지를 소독한 후 송아지가 젖을 빨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어미 소의 초유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초유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해 분만 직후 송아지에 급여해줘야 한다.

질병 예방백신 접종 중요

모든 질병은 발생 전 예방이 최선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송아지 설사 예방을 위한 백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분만 전 임신우에 접종하고 있다. 접종된 백신으로 인해 임신우의 체내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항체는 분만 후 초유와 함께 분비된다. 송아지는 이러한 초유를 섭취해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임신우에게 설사예방 백신을 접종했어도 송아지가 분만 직후 초유를 먹지 못한다면 질병저항 능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송아지는 분만 후 꼭 어미 소의 초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임신우에 백신접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분만 직후 송아지에게 백신을 직접 먹이는 방법도 있다**. 또 송아지 성장 시기에 따라 호흡기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찰 통해 질병 조기 발견·치료

아무리 앞에서 언급했던 예방조치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송아지의 질병을 100% 예방할 순 없다. 어느 농장이든 송아지는 농장주의 관심에 따라 질병발생과 치료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한 번 송아지를 관찰하는 농가와 하루에 세 번 관찰하는 농가의 송아지는 질병 발생과 치료효과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찰로 송아지 질병 발생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질병이 빠르게 치료될 가능성이 높고, 늦게 시작하면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송아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송아지 질병 발생률과 폐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 상주 ‘대농농장’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로 체계적인 사양관리 확립”

지난해 1⁺⁺ 출현율 50%·1⁺ 이상 90% 기록
거세우 평균 출하월령 25.8개월 생산성 높아

최근 한우농가들은 생산비가 증가한 가운데 한우 가격은 하락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거세우 출하 시 1⁺등급을 받아도 경락가격에 따라 손해 보는 일이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1⁺⁺등급 출현율을 기록하며 농장소득을 극대화하고 있는 한우농가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북 상주시에서 번식우 100두, 거세우 40두, 육성우 10두 등 한우 150두를 일관사육하고 있는 김병태 대농농장 대표다.

어렸을 적부터 한우를 좋아했던 김병태 대표는 대구농업고등학교 축산과와 상주산업대학교(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축산과를 거치며 한우사육에 대한 꿈을 키웠다. 이후 한우사육을 위한 밑천을 모으기 위해 경북 상주시에서 자영업업을 하다가 2010년 암송아지 50두를 입식하며 한우산업에 첫발을 디뎠다.

한우관련 교육받으며 선진농가와 소통

“본격적으로 한우를 사육하기 전에 이론에 대해 충분히 공부해야 농장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2007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축산학과 석사과정을 밟았다. 졸업 이후에도 지금까지 최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한우관련

▶ 김병태 대표.



▲ 체계적인 개량을 통해 사육되고 있는 소들이 TMF사료를 섭취하고 있다.

마이스터대학이나 농민사관학교를 다니며 배우고 있다. 그리고 함께 교육받은 선진농가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양관리를 터득하면 농장에 접목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교육을 듣고, 선도농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농장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개량이 필수라고 생각해 처음 암송아지를 입식할 당시 전국 평균 시세보다 약 2배 더 높은 가격으로 우량 암송아지만 입식했다”면서 “주변 지인들이 비싸게 구입한 암송아지를 보며 명칭하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농장을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량의 중요성에 대해 “한우사육 이듬해부터 한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폭락수준까지 내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농장을 폐업할까도 고민했었다”며 “그래도 폐업하기 전에 우량 암송아지에서 생산한 후대축의 출하성적까지는 직접 확인해야 한우사육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버텼고 결국 2014년 거세

우 8마리를 출하했다. 이때 주변에서 다 손해 보며 소를 출하했는데, 8두 모두 1⁺⁺등급을 받아 나름의 높은 소득을 올렸다”고 조언했다.

철저한 기록관리 가장 중요

이를 계기로 더욱 체계적인 개량에 매진하고 있다. 김 대표의 개량 노하우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기록관리이며, 다음으로 후대축 검정과 암소의 유전능력에 맞는 정액 선정이다. 김 대표는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사마다 기록지를 놓고 암소의 발정·수정·분만시각, KPN, 백신접종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록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후대축 검정을 통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암소의 유전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액 선정, 선발과 도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소의 유전능력에 맞는 정액선정이다. 개량을 하는 농가라면 1그룹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정액을 사용하고 싶겠지만 쓸



▲ (왼쪽부터)첫째 아들 성준 씨, 김 대표, 둘째 아들 성민 씨가 농장 내부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했다.

림현상으로 인해 당첨되기도 힘들뿐더러 후대축의 유전능력은 암소와 수소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유전능력으로 물려받기 때문”이라며 “오죽하면 계획교배 시 2그룹, 3그룹에 있는 정액이 우리 농장에서 사육중인 암소의 유전능력과 더 잘 맞는다”고 덧붙였다.

송아지 폐사율 1% 미만·1년 1산 실현

개량만큼이나 사양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김 대표는 번식을 하는 농가라면 암소와 갓 태어난 송아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송아지 한 마리가 폐사하면 농가가 입는 손해는 막심하다. 이에 로타·코로나 백신을 초산우 일 경우에는 분만 6·4주 전에, 경산우는 분만 6주 전에 접종하고 있다”면서 “또 송아지가 갓 태어나면 어미 소에게는 다음 번식활동을 위해 비타민제, 칼슘제, 항생제, 영양제 등을 접종하고, 송아지는 가장 먼저 배꼽 소독 후 면역력 증강제, 영양제, 비타민제, 설사·호흡기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관리를 위해 어미 소는 약 2만 5천원, 송아지는 3만5천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면서 “물론, 지금과 같이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비용이 아까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매년 약 80여두의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폐사율이 1% 미만이며, 암소들도 대부분 1년 1산을 실현하고 있어 투자 대비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성우 시기 TMF사료 최대 17.5kg 급여

사료 급여는 2~3개월령에 이유시킨 후 5개월령까지 하루 동안 송아지 전용 건 TMR사료 3kg, 조사료는 티모시, 알팔파, 라이그라스 등이 섞인 조사료 믹스를 무제한 급여하고 있다.

6개월령부터 12개월령까지는 육성우 TMF사료를 하루 동안 10kg부터 시작해 개월령에 따라 점차 급여량을 늘려 최대 17.5kg까지 급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골격이나 뱃고래 형성을 위해 육성 구간에 조사료 함량이 높은 TMF사료를 최대한 많이 급여해야 비육후기에 마블링이 고르게 형성된다”며 “다만 무작정 급여량만 늘린다고 소들이 다 섭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제와 생균제를 드레싱하듯이 급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3개월령부터 21개월령까지는 비육전기 TMF사료를 하루 동안 17kg 급여하고 있다. 21개월령부터 출하할 때까지는 C등급 출현율을 낮추고, 입단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육후기 TMF사료 15kg 정도를 급여하고 있다.

번식우는 13개월령부터 배합사료 5kg, 조사료는 볶짚을 무제한 급여하고 있으며, 경산우는 배합사료 4kg, 볶짚 2kg을 급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김 대표는 지난해 평균 출하월령 25.8개월의 거세우 25두를 출하해 1⁺⁺등급 출현율 50% 내외, 1⁺이상은 90%의 성적을 기록했다.



▲ 농장 내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김 대표.

끝으로 김 대표는 “지속적인 암소개량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농장으로 만들어 현재 축산학과를 다니고 있는 두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했다.



▲ 김 대표는 음수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음수조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

대농농장 사양관리 ‘꿀팁’

■ 암소개량 노하우

- 축사마다 기록지 놓고 암소의 발정·수정·분만시각, KPN, 백신접종 등 특이사항 기록.
- 후대축 검정 통해 암소 유전능력 정확히 파악.
-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액 선정, 선발과 도태 실시.

■ 신생송아지 및 육성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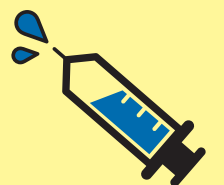
- 가장 먼저 배꼽 소독 후 면역력 증강제, 영양제, 비타민제, 설사·호흡기 백신 접종.
- 2~3개월령부터 5개월령까지 하루 동안 송아지 전용 건 TMR사료 3kg, 조사료는 티모시, 알팔파, 라이그라스 등이 섞인 조사료 믹스 무제한 급여.
- 6개월령부터 12개월령까지 비타민제와 생균제를 드레싱하듯이 급여하면서 육성우 TMF사료를 하루 동안 10kg부터 시작해 개월령에 따라 최대 17.5kg까지 급여.

■ 번식우 관리

- 초산우 분만 6·4주 전, 경산우 분만 6주 전 로타·코로나 백신 접종.
- 송아지 분만하면 다음 번식활동을 위해 비타민제, 칼슘제, 항생제, 영양제 접종.
- 초산우는 13개월령부터 배합사료 5kg, 볶짚 무제한 급여.
- 경산우는 배합사료 4kg, 볶짚 2kg 급여.

■ 거세우 관리

- 13개월령부터 21개월령까지 비육전기 TMF사료 하루 동안 17kg 급여.
- 21개월령부터 출하 시까지 비타민제 드레싱하듯이 급여하면서 후기 TMF사료 15kg 정도 급여.



※ 농장별로 사양환경이 다를 수 있으니, 사양관리 ‘꿀팁’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세요.

이병환 전국한우육종농가협회회장

“명품 한우 노하우… 후배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

1991년부터 암소개량 중요성 인식해
체계적인 기록 통한 선발과 도태 실시
각종 대회 수상, 보증씨수소 다수 생산

최고급육 생산이 가장 큰 경쟁력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소를 만드는데 인생을 바쳤다. 앞으로는 명품 한우를 생산·육성할 수 있는 나만의 사양관리 노하우를 후배 한우인에게 전수하는 것이 목표다.”

2015년 전국한우육종농가협회회장으로 취임한 이병환 회장은 1991년 민간 인공수정사로 일하다 이듬해 가평축협에 입사해 10년 동안 개량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사육에 대한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했다.

특히 가평축협 직원일 당시 가평 한우 개량단지를 전국 최고 수준까지 올려놓은 장본인이기도 한

이병환 회장은 “현재 한우농가들은 소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사료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돼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개량을 통한 최고급육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우산업이 불황일 때는 최고급육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진다. 농가들도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이 막연할 수도 있지만 개량을 시작해보면 한우사육에 다른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량 방향에 맞는 정액 선정

“암소개량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려면 개량한 암소에 계획교배를 시켜야 한다. 여기서 계획교배 성공조건은 무조건 좋은 정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암소 능력에 맞는 정액을 선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교배를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점은 자신이 사육하는 암소의 능력을 완벽히 파악하는 것이다. 말처럼 개량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내를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을 농가들이 알았으면 한다.”

이 회장은 암소개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암소의 유전능력 파악이고, 이를 위해선 철저한 기록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소의 발정부부터 수정·분만시각, KPN, 재발정 여부, 후대축 생시체중·이유시체중·출하성적, 기타 특이사항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지를 통해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개량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전체 분석, 암소검정사업 등에 참여해 암소의 유전능력 정확도를 높이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체계적인 계획교배 및 선발과 도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액선정에 있어 농가에서 선호하는 정액들은 쓸림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다. 특히 선호정액들은 대부분 같은 계대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개량을 하다보면 근친도가 높아져 암소개량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암소의 유전능력이나 근내지방도, 도체중 등 농가가 설정한 개량 방향에 맞는 정액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개량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환 회장 수상이력

• 2002년 · 2008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우수상
• 2009년 · 2011년 · 2015년 등
총 6두 보증씨수소 생산

• 2011년
한우우수가축 선발대회 경산우 부문 최우수상
• 2012년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3세대 개량부문 최우수상 · 한우암소개량 공모 대상

• 2017년
한우사육공로 제22회 농업인의날 기념 대통령 표창

한우자조금에서 알려주는 사양관리 프로그램 정보

※한우경영정보시스템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상단 ‘정보·교육’을 클릭 후 ‘설치프로그램’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설치 및 사용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농가활용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연구 활동 → 농가 활용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효율적인 퇴비 부숙 위한 우분관리 요령

- ✓ 톱밥 등 적절히 사용해 함수율 65%(최대 75%)정도 유지
- ✓ 양질의 퇴비 우사바닥 깔짚(수분조절재)으로 활용 가능해



이 정 식 환경친화부장
(축산환경관리원)

유기물인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산소가 있는 곳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발효)된 상태(물질)로 부숙이 완료된 우분 퇴비는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이며, 질소, 인산, 칼리 등의 비료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우분 퇴비는 악취문제와 함께 토양, 수계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우농가의 관심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부숙도 기준

- **검사주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연 2회)마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연 1회)마다** 농업기술센터 등 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발생분뇨 전량 위탁처리 농가' 및 '1일 300kg 미만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제외다.
- **검사결과** - 배출시설(축사, 운동장 등) 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이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된다.

■ 퇴비화 방법

부숙도 관리에서는 사육두수와 함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규모의 이상으로 소를 사육한다면 발생한 분뇨량이 퇴비사 용량을 초과해 처리능력을 벗어난다. 특히 함수율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반작업을 많이 하고 퇴비사 공간(면적)이 충분해도 공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부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며 썩게 된다. 따라서,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또는 저밀도 사육)하고, 우사와 퇴비사에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함수율을 65%(최대 75%)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 스킨로더 등 장비를 이용해 우사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퇴비사 내 함수율을 65% 정도로 조절(최대 75%)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 1회 이상 교반**하고, 교반작업 시 **미생물제를 살포**하면 발효 촉진과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
- 퇴비더미를 쌓거나 교반할 때는 더미 입자가 공기와 접촉이 많이 되도록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털어 주면서 작업하고, **퇴비더미는 1.5~2.0m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퇴비더미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압착되어 공기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너무 낮으면 퇴비더미 내 발열반응에 의한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온도 보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 퇴비사 공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옮기면서 가급적 공기접촉이 많이 이뤄지도록 교반하는 것이 좋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승인 후 퇴비사 외부에 방수포*를 깔고, 밖으로 꺼낸 뒤 다시 집어넣으며 교반하면 된다.

〈표〉 퇴비의 부숙도 적용 기준

구분	종류	항목	기준	시행일
퇴비	모든 가축	부숙도 (腐熟度)	배출시설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3.25.
			배출시설 1,500㎡ 미만/부숙중기	
	소·젖소	함수율	70% 이하	'15.3.25.
		염분	2.5% 이하	

* 방수포를 깔고 작업 중 폭우 등으로 공공수역에 유출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지자체 신고·승인 후 지역주민에게 작업내용 안내 후 작업해야 한다.

- 부숙 완료 여부는 색깔 및 형상, 냄새, 함수율로 간이 판정하여 관리하고, 부숙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경지 등에 살포하면 된다. 간이 판정 요령은 축분 형상이 없는 가루 상태이고, 색깔 및 형상은 진한갈색 또는 흙색인 것이 부숙 완료 상태이다. 또 냄새는 축분냄새에서 흙냄새로 바뀌며 퇴비를 움켜쥔 때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스미지(함수율 50% 정도) 않으면 된다.

■ 부숙 퇴비 활용

부숙 퇴비를 경종농가와 협약된 필지에 균일하게 살포하고, 살포 후 즉시 경운 및 로터리를 실시해야 한다(2회 이상 권장). 또한, **부숙이 완료된 양질의 퇴비는 우사바닥 깔짚(수분조절재)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깔짚으로 재활용할 경우 톱밥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염분 축적 문제가 있으므로 1회 정도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우사 중 일부분에만 우선 사용해 세균, 벌레 등에 의한 피부병 및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전체 우사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퇴비를 깔짚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퇴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23년 온라인 한우장터 & 전국 한우 할인판매행사 성료

전략적 홍보·가격 연동방식 통해 역대급 흥행
엄선된 브랜드의 높은 품질도 매출 상승 견인

한우자조금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우 할인판매를 진행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2023년 설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는 한우 정육량 기준 100여두 분량에 해당하는 약 27톤을 판매하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여기에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한 ‘한우 할인판매행사’도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역시 민족대명절에는 한우’라는 인식을 공고히 했다.



2023년 온라인 한우장터

고품질 브랜드 한우고기 저렴한 가격에 판매

‘2023년 설맞이 온라인 한우장터’가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온라인 한우장터는 한우자조금이 2014년부터 설과 추석 시즌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해 오던 한우 직거래 장터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설맞이 온라인 한우장터’에는 녹색한우(전남), 늘푸름 흥천한우(강원), 안동비프(경북), 울산축협한우(울산), 장수한우(전북), 토바우(충남) 등 총 6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등심·안심·채끝 등 구이류와 우둔·설도·목심·앞다리·양지 등 불고기 및 국거리를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1등급 한우 100g 기준 등심 6,300원, 안심 8,700원, 채끝 6,800원, 불고기·국거리 2,500원, 양지 4,400원 등에 구입할 수 있었다.



5일간 14억3천만원 매출액 달성...역대 최고 기록

이번 온라인 한우장터는 지난해 설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명절한우장터) 매출액인 13억9천만원보다 약 4천만원 증가한 총 14억3천만원의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소비위축 상황에서도 온라인 한우장터의 매출이 증가한 원동력은 유통단계 축소와 한우가격 연동방식을 통한 판매가격 책정이 주효했다. 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엄선된 품질의 한우브랜드 업체들이 행사에 참여한 점도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한우장터를 추가적으로 확대·운영해 한우 소비 촉진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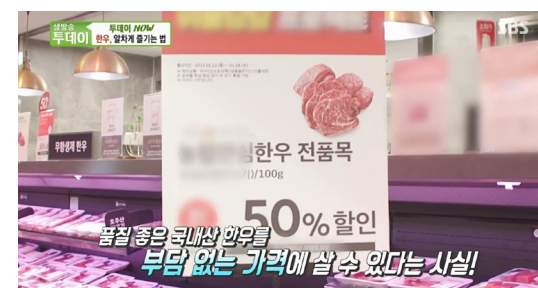
2023년 설날 전국 한우 할인판매 행사

전국 770개 매장에서 한우 인기 부위 최대 50% 할인

한우자조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소비촉진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대적인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열었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전국 농축협매장 및 농협라이블리 온라인몰,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 등 총 770개 매장에서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불고기, 국거리 등 한우 인기 부위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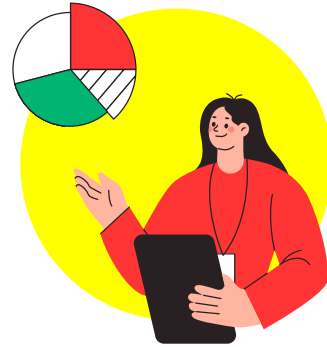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총 118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고품질 한우 할인판매 행사 적극 홍보

한우자조금은 올해 전국 한우 할인판매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SBS 생방송 투데이를 통하여 홍보에 나섰다. 이 방송에서는 고품질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한우 할인판매 행사에 대해 소개·강조하며 구매로 이어지도록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3’ 발표



올해 한우 사육두수 357만4천두 전망
거세우 도매가격 1만8천원 내외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하 농경연)은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3’을 발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한우 사육두수는 정액판매량 감소 등으로 송아지 생산두수는 감소하겠으나 누적된 입식두수가 많아 전년보다 0.6% 증가한 357만4천두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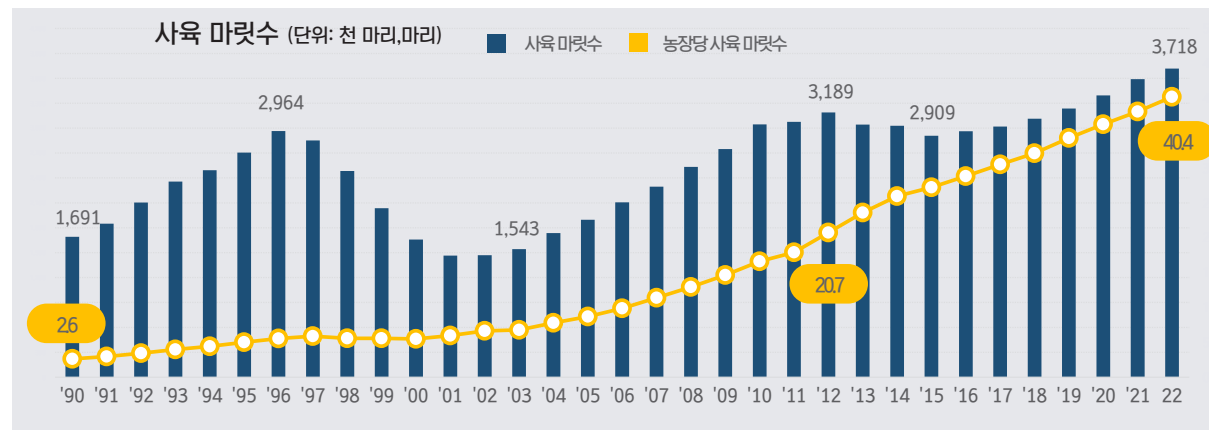
특히 올해 한우 거세우 기준 평균 도매가격은 1만8천원 내외로 예측했으며, 한우 전체 평균 도매가격도 도축두수 증가로 인해 2024년까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한우산업 현황

가임암소 169만6천두로 역대 최대 수준 갱신

지난해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371만8천두로 증가국면 7년차에 접어들었다. 특히 가임암소 사육두수는 169만6천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사육 농가 수는 9만2천호로 감소세이나 농장당 사육두수는 2021년 대비 2.2두 증가한 40.4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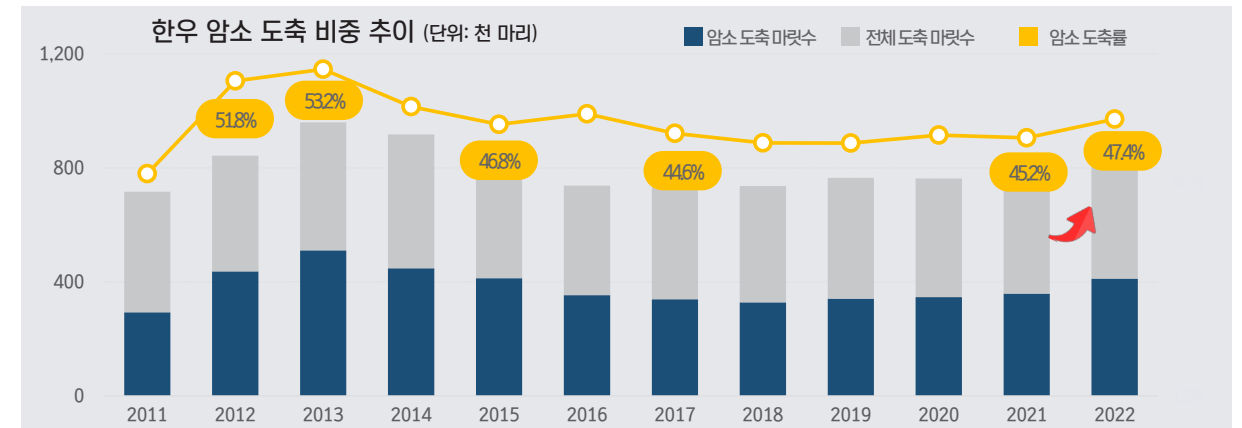
이는 한우농가의 전업화, 규모화, 일관사육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별 사육 농가 수를 살펴보면, 소규모농장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증가했다.



한우 도축두수 전년 대비 9.9% 증가한 86만9천두

지난해 한우 도축두수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86만9천두였다.

한우 암소 도축두수는 41만2천두로 전년 대비 14.8%, 평년 대비 20.2% 증가했으며, 수소(거세우 포함)는 전년 대비 5.0%, 평년 대비 9.9% 증가한 45만7천두였다. 거세우 도체중은 2021년 454kg에서 지난해 461kg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평균 출하월령은 30.6개월로 전년(30.3개월)보다 0.3개월 길어졌다.



소고기 공급량 전년 대비 15.1% 증가한 76만5천톤

지난해 소고기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2021년(71만6천톤) 대비 6.8%, 평년(66만5천톤) 대비 15.1% 증가한 76만5천톤이었다. 이중 국내 생산량은 도축두수와 도체중 증가로 2021년(26만4천톤) 대비 9.3%, 평년(24만4천톤) 대비 18.0% 증가한 28만8천톤이었다.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미국산이 55.3%로 전년보다 1.0%p, 호주산이 34.0%로 1.4%p 하락했으며, 뉴질랜드가 4.8%로 0.9%p 상승했다. 지난해 소고기 자급률은 수입량이 증가했지만 국내산 공급 확대 폭이 더 커 2021년 대비 0.9%p 상승한 37.7%로 추정됐다. 1인당 소비가능량은 국내 생산 및 수입량 증가로 14.8kg으로 추정됐다.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대비 7.4% 하락한 2만980원

코로나19 시기 공급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도 증가해 강세를 보였던 한우 도매가격은 2022년 들어 공급량 증가와 수요 둔화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지난해 한우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만980원으로 전년 대비 7.4% 하락했으며,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이 5.9%로 하락 폭이 가장 적었고, 1⁺등급, 1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한우고기 도매가격 상승국면에서 1등급 이상 고급육과 2등급 이하 가격 격차는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나, 하락국면에서는 등급이 낮아질수록 등급간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우산업 전망



한우 사육두수 정점...내년부터 감소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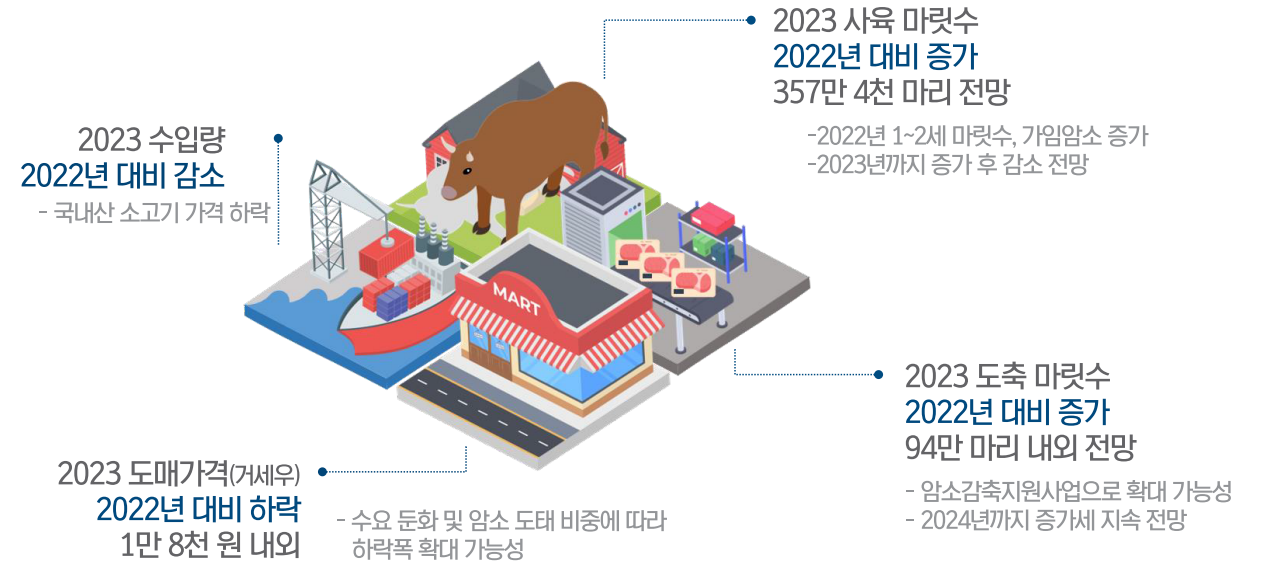
올해 한우 사육두수는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번식의향 감소, 암소 도축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1세 미만, 1~2세 사육두수 감소로 이어져 정점을 찍은 후 내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사육두수는 누적된 입식두수 증가로 2022년 대비 0.6%, 평년 대비 10.3% 증가한 357만4천두로 전망되며, 한우 도축두수는 올해 사육두수 증가의 영향으로 2024년(100만두)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암소 비육지원 사업 약정 이행 및 농가의 자율적 수급 조절 상황에 따라 사육두수 정점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소고기 생산량 전년 대비 7.7% 증가한 31만톤

올해 출하에 영향을 미치는 2020년, 2021년 송아지 생산두수가 늘어 출하 가능한 거세우 사육두수가 증가했다.

여기에 암소 사육두수도 누적된 마릿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2022년 대비 7.7% 증가한 31만톤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수입량 전년 대비 5.4% 감소한 45만1천톤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2022년 대비 5.4% 감소한 45만1천톤으로 전망된다.

소고기 공급량은 국내 도축 물량은 증가했지만 수입량 감소 영향으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한 76만2천톤, 1인당 소비가능량은 14.8kg으로 예상된다.

수입량 감소와 국내 생산량 증가로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은 2022년보다 3.0%p 증가한 40.7%로 예측된다.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 2024년까지 약세

올해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도축두수 증가에 따라 2024년까지 지속적인 약세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거세우 기준)은 2022년보다 하락한 kg당 1만8천원 내외로 전망된다.

사료가격 부담 전년보다 경감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암소 비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 할인행사 추진, 급식 및 가공품 원료육을 수입 쇠고기에서 한우로 대체, 수출 확대 정책 등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한우가격은 2023년 전망치(1만8천원대)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달러 강세 등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부담도 전년보다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 대명절 설날!
함께 나누는 기쁨은 '한우'와 함께!
‘한우가 최고!’
명절 선물 선호도 ‘1위’

1월 방송에서 만난 한우는 부위별 적합한 명절 요리 소개 및 레시피 제공 등 설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품질 좋고 맛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명절한우장터와 한우 할인판매행사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협찬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알렸다. 아울러 명절 선물세트 1위에 빛나는 한우 선물세트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우 선물세트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노출했다.



SBS<생방송 투데이> 1월 17일

이날 방송은 맛도 있고 영양가도 최고인 한우가 명절에 받고 싶은 선물 1위임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다. 명절에는 한우가 최고' 등 소비자 인터뷰 장면으로 명절에 빠질 수 없는 한우 선물세트의 이미지를 더욱 극대화했다.

또 한우의 우수성과 부위별 한우고기를 활용한 사태찜, 육전 등 한우 명절 음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장면을 담아 한우고기의 가치를 알렸다.

한편, 방송에서는 고품질 한우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할인판매 행사에 대해 소개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TV조선<화요일은 밤이 좋아> 1월 23일·31일

미스트롯2 주역들과 국가대표급 레전드 가수가 한 팀을 이뤄 짜릿한 노래대결을 펼친 이번 방송에는 트바로티 김호중, 핑크빛 2월의 신부 서인영, 개가수의 원조는 나야! 개그계 조각 미남 허경환 등이 함께 출연해 놀라운 실력을 선보였다.

우승팀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은 바로 '한우선물세트'. 이날 방송은 '설 명절을 맞이해 한우선물세트를 드립니다', '몸에 좋은 한우세트를 드립니다' 등의 사회자 멘트로 시작됐다.

특히 한우선물세트에 구성된 한우고기의 품질을 확인한 출연자들은 '녹화 끝나고 바로 한우 회식각(?)', '어머 어머 때갈 보소' 등의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5기 후반기 한우자조금 임원선거

대의원회 의장·감사·관리위원장 선거 3월 14일 열려



향후 2년 동안 한우자조금을 이끌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 관리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3월 14일 열린다. 한우자조금은 1월 19일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2023년 제2차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공고(안), 선거운동 방법(안), 선거인 명부 제공(안)에 대하여 결정했다. 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의원 5명 이상 후보자 추천서, 선거 공보용 사진,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명선거 서약서, 소견발표 영상(선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13일 9시부터 17일 18시까지로, 접수는 모사전송,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 관리위원장 임기는 2025년 2월 15일까지다.

■ 제5기 후반기 한우자조금 임원선거 일정

구분	대의원회 의장	감 사	관리위원장
선거공고	2023. 2. 1(수)		
선거인	제5기 한우자조금 대의원(243명)		
선출정수	1명	2명	1명
임기(기간)	2년 (‘23.2.16~’25.2.15)		
후보자등록기간 (공휴일 제외)	2023.2.13(월) ~ 2.17(금), 5일간 * 연장 시 2023.2.20.(월) ~ 2.22(수)		

‘한우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 결과 발표

사육형태 맞춤형 정책 토대 마련

한우자조금이 발주하고 경상국립대학교(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가 수행한 ‘한우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 결과가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한우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생산비 증가 등 농가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우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한우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우법인은 820개소로 전체 한우 농장 수의 0.9%에 해당하며 사육두수는 16만3천두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달리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사육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개인 농가와 달리 한우법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 지었다고 밝혔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업농과 비전업농 구분에 있어서는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전업농의 규모는 최소 100두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력제상 100두 이상 규모의 농장수는 전체 농장수의 8.9%(7천998개)이며 사육두수는 전체의 41.5%인 141만7천두로 조사됐다.

연구 중 또 다른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사육규모, 시설투자, 후계농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영주의 연령은 기대수명 증가와 신체적 건강정도를 고려했을 때 70세 정도를 고령농에 대한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 적합하고, 기타 농가는 청장년농으로 정의했다.

또 사육 방식에 따라 번식농가와 일관사육농가, 비육농가로 분류해본 결과, 2021년 기준 이력제 자료상 번식농가수는 4만2천455호로 전체 농장의 47.2%를, 비육농가수는 8천130호(9.1%), 일관사육농가수는 3만9천239호(43.7%)로 나타났다.



■ 한우농가 유형 구분

(단위 : 호/두)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법인	820(0.9%)	163,208(4.8%)
개인	89,004(99.1%)	3,252,124(95.2%)
비전업농(100두 미만)	81,826(91.1%)	1,998,414(58.5%)
전업농(100두 이상)	7,998(8.9%)	1,416,918(41.5%)
비육농장	8,130(9.1%)	329,376(9.7%)
번식농장	42,455(47.2%)	734,800(21.5%)
일관사육농장	39,239(43.7%)	2,351,156(68.8%)
청장년농(70세 미만)	65,567(73.7%)	2,782,529(85.6%)
고령농(70세 이상)	23,437(26.3%)	469,595(14.4%)

※ 청장년농/고령농 수치에서 개인으로 분류된 농장은 이력제 등록상 법인으로 등록된 농장을 뺀 것으로 일부 실제 법인이 포함된 수치임.

연구팀은 이처럼 한우농가 유형에 따라 수급상황, 경영상황 등에 연관지어 맞춤형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날에도 한우와 설래빗 ‘나만의 소망카드를 꾸며보소’ 이벤트

7천471명 참여해 한우 세트·육포 등 105명 선물



한우자조금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새해맞이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인 ‘설날에도 한우와 설래빗, 나만의 소망카드를 꾸며보소’를 진행했다.

이번 ‘나만의 소망카드를 꾸며보소’ 이벤트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한우장터 및 온·오프라인 한우할인행사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 이들의 새해 소망을 한우로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한우유명한곳(한우유명한곳.com)을 통해 진행됐으며, 7천471명이 참여해 ‘부자되소’, ‘건강하소’, ‘행복하소’ 등 나만의 소망 카드를 꾸몄다. 이벤트 경품은 20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5명)와 육포(100명)로, 멋진 소망 카드를 꾸민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했다.

2023년 1월 한우시황

2023년 한우 사육 마릿수 역대 최대 수준 기록 전망

■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1월	2022년		2023년 1월
도축두수(두)		765,328	762,746	794,234	98,349	100,229	95,881	88,073
경매두수(두)		403,449	410,849	429,890	56,184	59,991	60,872	53,898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7,965	17,772	21,169	20,403	19,972	16,384	15,904
	거세	19,116	21,241	22,667	21,485	21,129	18,249	17,672
	비거세	13,439	13,386	13,939	13,820	14,499	10,094	10,314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5,645	6,103	6,455	6,372	6,026	4,782	4,473
	송아지	암	2,830	3,415	3,402	2,864	1,988	1,951
		수	3,434	4,268	4,550	3,842	3,035	2,819
소매가격 (1등급/kg)	등심	83,250	97,830	102,980	101,340	111,840	99,580	97,410
	양지	55,820	60,140	62,980	59,470	62,860	58,230	57,370
	설도	43,420	47,330	49,500	48,310	48,080	44,060	42,340

*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 한우 사육현황 및 한우농장 현황

총 한우 두수	총 암소 두수	총 가임암소 두수	총 한우농장 수
3,480,739	2,216,130	1,679,697	87,470

* 가임암소 두수 : 15개월령 이상의 암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자원실〉

■ 수소(거세 포함) 출하대기 두수

구분	12월		1월
	출하대기 두수	실제출하 두수	출하대기 두수
두수(도축비율)	208,029	49,696(23.8%)	186,196

* 출하대기두수 : 전월 기준 27개월령 이상 수소

* 실제출하두수 : 전월 출하대기두수와 해당월 28개월령 이상 수소 두수의 차이

■ 한우 도매가격 전망

출하 대기 물량 증가, 번식의향 감소로 암소 도축이 증가해 22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한우 도매가격(전체 평균/1~10월) : 1만 9,547원/kg(전년 대비 8.0% 하락)

* 도축 마릿수 증가 및 수요 감소 영향

→ 11월 한우 도매가격(전체 평균/1~29일) : 1만 7,723원/kg(전년 대비 16.5% 하락)

(단위 : 원/kg)

구분		한우 도매가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		17,500~ 18,500	17,500~ 18,500	18,000~ 19,000	17,000~ 18,000
2022년		19,754	19,484	19,592	18,000~ 19,000
과거 불황기	2011	14,261	12,066	12,517	12,671
	2012	13,534	13,305	13,116	12,620
	2013	12,560	11,682	12,919	13,938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한우자조금 소식지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소식지 주소를 스마트폰
또는 PC주소창에 입력
hanwoonews.com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 촬영하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 웹진' 검색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소식지 배너 클릭
www.hanwooboard.or.kr

독자 Review

〈한우자조금〉에 보내주신 독자의 소리

[선도농가 탐방]
이○찬 (전북 김제시)

1^차 출현율 85.2%, 평균 도체중이 491.7kg 농장의 숨은 노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지면에 실리지 않은 농장 사양관리 등 더 배우고 싶습니다. 대량 사육을 하면서도 깨끗한 송아지 우사, 체계적인 급여관리, 기록관리와 적극적인 열정과 노력을 보면서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제 시작하는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배움, 열정이 새로운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선도농가 탐방]
정○소 (경북 봉화군)

한우농가 탐방을 보면 항상 배울게 많네요. 저는 여태껏 초유만搾아된다는 생각에 애기가 쭈쭈를 안먹으면 어미 소를 스탠존에 잠귀서 어떡해서든 먹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했는데 kg성분 분말 파우더가 있다는건 처음 알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 배웠네요. 요즘 소키우기 참 힘든데 다들 힘내세요~

[농장관리 체크포인트]
이○옥 (경북 영천시)

여름에 입식한 송아지가 설사 및 연변을 하던 차에 이번 추운겨울철 어린 송아지 설사병 예방 류일선 박사님의 글을 보고 송아지관리에 대한 포인트를 배워갑니다. 어린 송아지 설사로 인해 항상 걱정 많았는데 예방관리 요령을 통해 좀더 세심한 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방법

〈한우자조금〉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의 리뷰를 남겨 주세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웹진에 접속해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한우 선물세트 / 1명



한우 육포(50g) 10개 / 1명



한우 육포(15g) 10개 / 3명



농산물상품권(2만원) / 3명

응모기간 : 2023년 3월 6일(월) 까지
당첨자발표 : 2023년 3월호 소식지에 발표합니다.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협력사인 월간한우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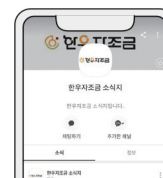
한우 선물세트	한우 육포(15g)	농산물상품권
이○찬 (7807)	송○영 (8370)	고○자 (2175)
	박○홍 (6831)	김○서 (9075)
한우 육포(50g)	이○옥 (1282)	강○인 (3057)
정○소 (4405)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오른쪽 큐알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채널 추가'를 눌러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소식지'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우 암소 비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농협)

- 접수처 : 관내 지역축협
 - 접수기간 : '23년 3월 31일(금) 까지
 - 지원내용 : 우수정액 신청권(마리 감축당 2.8str)
 - 대상개체 : '22년 8월 1일 기준 50개월령 이하 개체
- * 예시) 3~4두 우수정액 신청권 2개(10str) 지급, 최대 40두 까지 신청 가능

한우 암소 자율감축

- 접수처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및 관내 지역축협
 - 접수기간 : '23년 3월 31일(금) 까지
 - 지원내용 : 우수정액 신청권(마리 감축당 1.4str)
 - 대상개체
 - 미경산우 : '22년 8월 1일 기준 60개월령 이하 개체
 - 경산우 : '22년 8월 1일 기준 20개월령 이하 개체
- * 예시) 3~4두 우수정액 신청권 1개(5str) 지급, 최대 40두 까지 신청 가능

우수정액 공급 대상 보증씨수소

선발차수	지급대상 개체	유전능력(EPD) 수치			
		냉도체중(kg)	배최장근 단면적(cm²)	등지방두께(mm)	근내지방도(점)
70차	KPN 1489	33.65	6.95	-1.45	1.07
	KPN 1476	34.60	4.70	-0.21	1.09
	KPN 1492	29.49	7.63	-1.19	0.84
	KPN 1477	60.02	10.35	-1.05	0.44
	KPN 1473	30.12	6.52	-0.75	0.73
71차	KPN 1508	33.61	9.95	-0.95	1.21
	KPN 1517	38.37	9.49	-0.18	1.17
	KPN 1523	29.67	7.19	-0.91	1.11
	KPN 1526	35.60	8.05	-1.52	0.93
	KPN 1527	40.99	9.77	0.08	0.95

- * 70~72차 선발정액 :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참여 개체 대상 지급
 * 73~75차 선발정액 :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참여 개체 대상 지급
 * 72~75차 보증씨수소 선발은 향후 진행예정